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영원한 복음

요한 계시록 14:6-12절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된다. 삼중 기별로 연결됨으로써 이 기별은 멸망해 가는 세상에 마지막 경고와 구원의 기별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리키며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기별은 창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도록 모든 인간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 7).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다. 여러 세기를 걸치면서 거짓되고 성경과 모순되는 종교 조직들이 자라나게 되었고, 오류가 섞인 혼잡(바벨론)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14:8).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짓 종파들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르쳐 준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위협의 경고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14:9-11).

계시록 14:9-12절에 보면, 짐승의 표(일요일)가 성경의 넷째 계명(안식일)과 서로 대치하고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

기별의 목적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구속(拘束)하는 능력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또 이 기별은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세 천사로 상징된 이 세 기별은 회개와 개심으로 이끄는 개혁을 가져온다. 특징들은 분명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이 자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는 일곱 재앙으로 부여지는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계 16장).

세 천사의 기별의 전파는 재림 운동이 일어남으로 시작되었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큰외침과 계시록 18장 천사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던 대총회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기별로써 시작되었다. 그 기별은 계시록 18:1-4절의 천사의 “빛”의 시작이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63.

“이것이야말로(그리스도 우리의 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2.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가 큰 외침으로 증가되어 갈 때 또 다른 천사가 이 사업에 동참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11.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으로, 심각한 결과가 이를 뒤따랐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했을 때, 심각한 위기가 왔다.

넷째 계명과 여섯째 계명이 공공연히 범해졌으나, 십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함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개혁사업을 진전시켜나갔다.

사실 이들은 계시록 12:17; 14:12; 3:14-2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그분의 사업을 종결시키는데 사용하시겠다고 예언하신 신실한 남은 무리였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써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39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계 18:5, 4)도록 불려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04.

큰외침의 시작과 기별의 거절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리뷰 앤 헤랄드, 1892년 11월 22일).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 92.

“선입 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 J. 와그너]와 [A. T. 존즈]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가려뽑은기별 1권, 234, 235.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11.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이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11.5.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힘과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길은 전진하고, 언제나 전진하는 길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의 기별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미구에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달될 것이며,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 주시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가?”-교회증언 5권, 383.

선지자는 이 시대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라고 기록하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서울교회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SDA Reform Movement)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www.thelastvoiceofGod.com//www.imssdarm.net
02) 2207-1233, 010-2460-0070(서울), 010-4185-9928(평택)

